

몰랐던 국어·한글 이야기 매달 소식지로 받아보자

‘쉽표, 마침표.’ 2월호 발간

2010년 2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는 ‘2010 우리말, 정보기술을 만나다’는 주제로 한국어 정보처리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인간의 무한한 언어능력을 컴퓨터로도 구현하기 위하여 방대한 한국어 정보 자원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이 소개되는 한편, 소설적 상상력으로 구현된 미래의 언어생활이 흥미롭게 묘사된다.

우리말과 정보기술의 만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국어학자 홍윤표 교수는 기고문에서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에서 이미 서로 다른 한글 글꼴이 등장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미

고유어와 외래어, 외국어를 구분하고, 그 표기법에 차이를 두며 글꼴까지 다르게 표현했다는 점을 말한다.

한편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이지원 교수는 현재의 글꼴 디자인이 온라인 매체의 다양한 기술과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추추는 글꼴(애니메이션), 만질 수 있는 글꼴(터치스크린), 소리에 반응하는 글꼴(음성센서), 기온에 따라 변하는 글꼴(실시간 기상정보), 사용자의 위치를 반영하는 글꼴(GPS) 등을 상상해 본다.

외국에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 어려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고려 무인정reck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는 크세니야 하지조바 씨는 외국에서 ‘아래아한글’을 쓰면서 겪는 불편함을 토로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보낸 ‘아래아한글’ 파일

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컴퓨터와 충돌이 일어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과컴퓨터는 이에 답변을 보내 ‘아래아한글’의 개방성과 호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소식을 진행현황을 전했다.

새로워진 내용과 모습의 ‘쉽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주제로 ‘쉽표, 마침표.’를 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편된 ‘쉽표, 마침표.’는 기존의 전자책에서 웹문서 형식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크게 개선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우리말 맞춤기’ 쪽지를 신설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맞힌 독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왕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고궁에서 맞는 정월 대보름 달빛 27일 창덕궁 ‘달빛 기행’ 시범 운영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정월 대보름 전날인 오는 2월 27일 오후 8시부터 살아 숨쉬는 5대 궁 만들기를 사업 중 하나인 ‘궁궐 달빛 기행(夜行)’ 시범운영을 통해 비공개 시간대에 궁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정월 대보름 맞이 달빛 기행에서는 창덕궁 금전교 다리 밝기와 영화당에서의 소원 빌기, 이생강 선생의 대금 공연(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국순당(‘1문화재 1작품’) 협약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명주(耳明酒, 귀 밝이술) 마시기, 창덕궁 숲길을 따라 달빛 체험하기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달빛 기행 시범운영 참가신청은 (주)롯데관광개발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3만 원(창덕궁 입장료 15,000원 포함)으로, 세계유산 창덕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인원은 150명으로 제한한다.

이와 별도로 창덕궁관리소에서는 창덕궁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도 일부 초청하여 대보름달을 보며 소원 빌기를 함께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자세히 분석하여 오는 4월 27일부터 궁궐의 달빛 기행을 본격화할 것이며, 다른 고궁으로의 확대와 수용인원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 저작권법 적용 첫 ‘시정명령’ 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웹하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저작권법을 적용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 사전 통지와 함께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드(15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해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물이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왕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전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자치협의회 개최

광주광역시서서초교육청과 남구청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교과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공모에 A등급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12월에 문을 연 ‘효사랑 남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 전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자치협의회를 지난 16일 개최하였다.

교과부 방과후학교 팀장,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 소장, 전국 10개 지원센터 교육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한 이번 자치협의회는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효사랑 남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외부강사 동아리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 돌봄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남구 관내 학부 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책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9년 3월 이전)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3. 영역별로 1장씩씩 박선허 약에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강력한 학업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예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법제 전공자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법도도 부록과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연구재단교육원 (Study.co.kr) 등명장 강의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황성훈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02) 849 - 6157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우리말 다듬기’

▷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듬은 우리말)’**

‘워킹맘(working mom)’ ⇨ ‘직장인엄마’

국립국어원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을 통틀어 이르는 ‘워킹맘(working mom)’의 다듬은 말로 ‘직장인엄마’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이 주일 동안 ‘워킹맘(working mom)’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530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듯한 ‘두루엄마’, ‘밭이엄마’, ‘일터엄마’, ‘직장인엄마’, ‘취업주부’ 등 다섯을 후보어로 해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모두 2,098명이 투표에 참여해 ‘두루엄마’는 435명(20%), ‘밭이엄마’는 165명(7%), ‘일터엄마’는 248명(11%), ‘직장인엄마’는 1,041명(49%), ‘취업주부’는 209명(9%)이 지지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직장인엄마’가 ‘워킹맘(working mom)’의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 **‘어떻게 바꿀까요? (‘다듬을 말 투표’)**

‘하이파이브(high five)’

투표기간: 2월 16일 ~ 3월 1일

보기 : 한 선수가 농구 경기에서 3점 슈트를 성공 시킨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의미 : ‘각각 한 손을 높게 들고 상대방과 손을 마주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제안결과 : 지난 2주 동안 ‘각각 한 손을 높게 들고 상대방과 손을 마주치는 행동’을 가리켜 이르는 ‘하이파이브(high five)’를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720’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다섯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한 선수가 경기에서 3점 슈트를 성공 시킨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투표중인 후보어 :
① 공감손맞춤(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며 손을 마주치는 행동)
② 손맞춤(상대방과 내가 손을 마주치는 행동)
③ 손뽀나누기(상대방과 내가 손뽀를 마주쳐 마음을 나누는 행동)
④ 손뽀맞장구(상대방과 내가 손뽀를 마주쳐 호응하는 행동)
⑤ 하늘손치기(상대방과 내가 높이 손을 올려 손뽀를 치는 행동)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후보어를 제안해 주세요!**

다듬을 말 : ‘발레파킹(valet parking)’

제안기간: 2월 16일 ~ 3월 1일

보기 : 발레파킹이라 불리는 서비스는 주차 도우미가 주차와 출차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의미/용례 : ‘발레파킹(valet parking)’이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에서 주차 도우미가 손님 차량 대신 주차하고 발일이 끝나면 가져다주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발레파킹(valet parking)’을 대신할 우리말 제안을 받고 있다. 제안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참 좋은 우리말

▷ **자주 틀리는 표준어**

‘개발새발’ (X) ⇨ ‘괴밭개밭’ (O)

- 올바른 예 : 담벼락에는 ‘괴밭개밭’ 아무렇게나 나서가 되어 있었다.
- 잘 못 쓴 예 : 마치막으로 ‘작가’

들은 우선 좋은 작품을 쓰겠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고한 한 씨는 “당장 돈 몇 푼이 필요해 ‘개밭새발’ 쓴 글은 종이책이든 e북이든 세상에 뿌려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OO일보]

‘구설수에 오르다’ (X) ⇨ ‘구설에 오르다’ (O)

- 올바른 예 : 윤 장관은 특히

“공직자의 언행과 품위유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말고,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03.10.14.]

- 잘 못 쓴 예 : 카메라맨 등 기자와의 충돌에 팀 동료들을 폭행해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OO일보]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왕원석 기자